

심낭 삼출액으로 발현한 일차성 삼출 림프종 1예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한승효[✉], 한강원, 배상병, 김찬규, 이남수, 이규택, 박성규, 원종호, 홍대식, 박희숙

일차성 삼출 림프종(primary effusion lymphoma, PEL)은 B 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림프종으로 종괴 형성 없이 흉강, 심낭 및 복강내 혈장성 삼출액으로 발현하는 임상양상을 보인다. 주로 human herpes virus 8/Kaposi sarcoma herpes virus(HHV-8/KSHV)와 관련되어 있으며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면역결핍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한다. 예후는 중앙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심낭 삼출액으로 발현된 일차성 삼출 림프종은 보고된 바가 없어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62세 남자는 내원 3일전부터 발생한 운동시 호흡곤란과 흉부 압박감으로 내원하였고 이학적 검사에서 심음은 감소되어 있었으며 림프절종대 및 간, 비장종대는 없었다. 일반혈액검사 및 혈청생화학검사는 정상이었고 Anti-HIV와 EBV IgM, EBV PCR은 음성이었으며 골수천자와 복부전산화단층촬영술상 정상이었다. 흉부 X선 촬영상 심비대와 심초음파검사에서 중등도의 심낭삼출액이 관찰되었다. 심낭천자술을 시행하였고 삼출액의 세포병리검사서 크기가 크며 핵이 둥근 다수의 역형성 세포들이 관찰되었으며, 면역조직화학검사서 CD45, CD30, CD38, HHV8은 양성하였고 CD20, CD138, LMP1은 음성이었다. 환자는 6회의 CHOP 복합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고 완전관해에 도달하여 현재 추적관찰 중 이다.

불응성 악성 흉막삼출액에서 cisplatin과 cytarabine을 이용한 완화적 흉막강 내 항암요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연세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¹

최상태[✉], 문용화, 김철, 정희철, 손주혁, 라선영, 유내춘, 정현철, 김주향, 노재경, 김용태,¹

배경: 악성 흉막삼출액은 전신적 항암요법에 반응이 좋지 않아, 흉관삽입술 및 tetracycline 혹은 talc 등을 이용한 흉막 유착술을 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악성종양을 처음 진단받을 때 동시에 존재하는 악성 흉막삼출액에 대해서 전신 항암요법 및 흉막유착술을 시행하기 전에 국소적 치료로서 cisplatin과 cytarabine을 이용한 흉막 내 항암치료의 반응율이 49-80% 라는 문헌 보고들이 있다. 저자들은 수회 항암요법후, 전신상태가 ECOG 4이며, 더 이상 전신적 항암요법을 시행할 수 없었고, 흉막유착술에도 반응이 없었던 악성 흉막삼출액이 있는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cisplatin과 cytarabine을 이용하여 흉막 내 항암요법을 시행하여 급격한 흉막삼출액의 감소를 보인 경험을 하였고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47세 여자환자가 3주 동안의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4년 전 자궁경부암 (병리:선암,병기Ⅲb) 진단받고, 5 FU와 cisplatin으로 화학, 방사선 동시요법 시행 후 완전관해를 이루었고, 3년이 경과된 후 폐전이 발생하여 6회 taxol/ifosfamide, 2회 etoposide, 2회 BVM(bleomycin/vincristine/MVC) 항암 화학요법을 받았으나, 폐전이가 악화되고 뇌전이가 새로 발생하여, 내원 1년 전부터 보존적 치료만 하고 있었다. 내원 당시 좌측 폐야에 다량의 흉막삼출액이 있었으며, 흉막액의 세포병리 검사상 자궁경부암에서 기인한 선암이었다.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25일 동안 중앙값 320ml/일 (범위, 110-440)의 흉막 삼출액이 지속적으로 배액되었다. 흉관삽입술 후 26일째, talc 2.0g을 사용하여 흉막유착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5일 동안 중앙값 550ml/일(범위, 480-800)의 흉막삼출액 배액이 지속되어, 흉관삽입술 32일째에 cisplatin 100mg/m², cytarabine 1200mg/m²를 흉막강 내에 주입하고, 4시간동안 유지한 후 배액하였다. 이후 18일 동안 중앙값 110ml/일 (범위, 20-240)로 배액량의 감소와, 호흡곤란의 경감이 있었으며, 백혈구 감소증의 부작용은 없었다. 특히 13일 이후에는 매일 100ml/일 미만으로만 배액 되었다. 흉관을 제거할 계획이었으나, 흉막강내 항암 화학요법 후 9일째 채골하정맥 도관 삽입중에 기흉이 발생하여, 흉관을 제거하지 못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흉막강내 항암 화학요법 21일째 전신상태 악화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요약: 전신 화학요법에 반응이 없거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신적 화학요법을 받지 못하거나, 흉막유착술에 효과가 없는 불응성 악성 흉막삼출액의 치료에 있어서 cisplatin과 cytarabine을 이용한 흉막강내 항암요법이 흉수량 감소를 통한 증상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